

출판탄압의 역사

출판은 발생 초기부터 해당국가로부터 수많은 통제를 받아왔다. 출판이 전문적인 이데올로기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였기 때문이다.

금서의 역사는 인쇄본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501년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인쇄본은 교회와 성서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교황청의 허가 없이 인쇄본 성서를 출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칙서를 내렸다. 독일은 1592년 검열제를 실시했으며, 영국은 이미 15세기 무렵 참여한 이데올로기의 현장인 대학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을 검열하는 검열관의 임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검열을 시작한 국가들은 출판검열을 여기는 출판인들을 중세의 법에 따라 처벌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정부측의 말을 잘 따르는 출판사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등 온갖 통제수단을 개발해냈다. 1789년 프랑스혁명 때 격분한 민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해방시켰을 때 그 속에는 작가, 출판인, 서적상이 무려 800명이나 투옥되어 있을 정도였다(《현대사회와 출판》, 임동욱 지음 44면).

우리나라에서도 출판탄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연산군은 백성들 사이에 자신을 비방하는 문서들이 확산되는 데 분노해 한글사용자들을 처형하고 한글서적을 불사르는 등의 탄압책을 사용했으며, 대원군은 1896년 천주교를 법으로 금지하면서 홍문관에 소장된 서양서적을 불태우기도 했다.

우리나라 근대 출판검열의 역사는 불행한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일제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1909년 출판법

출판은 발생 초기부터 수많은 통제를 받아왔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행해진 출판탄압의 역사는 곧 당시 국가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을 제정, 모든 출판물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시작했고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더욱 혹독한 출판물 통제를 시작했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 때까지의 출판검열은 미군정 당국에 의해 진행된다. 당시 미군정은 일제 때 발효되었던 관련 법규를 폐지하고 출판물 심의를 다소 완화한다. 그러나 반공정책에 의한 교과서 검열을 실시하고 용지배급권을 행사하면서 이른바 좌익 출판사들의 출판을 규제했다.

출판검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예외없이 가혹하게 행해졌다. 사회적 안정과 미풍양속을 위해서라는 전제가 따라다녔지만 실제로는 정권유지를 위해 반체제세력을 탄압하는 일환으로 저질러진 것이 더욱 많았다. 이들 정권은 출판사에 대한 등록취소 조항 등 벌칙조항을 강화했고, 법적인 통제뿐 아니라 재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한 총체적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법적인 통제에 있어서도 출판에 관한 법안이 아닌 국가보안법, 경범죄 처벌법, 군사기밀보호법, 임시우편단속법 등을 원칙 없이 적용해 탄압을 가했다. 특히 보안법은 반정부 출판물을 탄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되었고, 경범죄처벌법은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는 데 악용되었다. 5공화국 동안 불법 연행된 출판관계자들만 48명에 달했던 사실이 당시의 상황을 웅변해준다.

이처럼 출판탄압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당시 국가나 정권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최근 영국에서는 세계 유명한 금서들을 공개경매로 판매하는 행사가 열려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경매에서는 D.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 초판을 비롯,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폴란드어판에서부터 셀 먼 루시디의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금서로 분류된 책들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갔으며, 판매수익은 전세계 검열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지금도 금서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가하는 출판통제 행위가 과연 국가와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모두 타당하고 절실한 것인지에 대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1세기 사회가 '열린 사회'로 이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의 출판개입도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출판저널

통권 제181호/1995년 11월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립 이정민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책을 잘 만드는 사람들

「출판에 관한 종합 서비스—어떤 제작물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제작물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편집(교정, 교열, 조판)/광고(잡지 및 신문광고)
디자인(표지 및 본문디자인, 일러스트)
기타(수학 교재, 참고서, 잡지, 사보)
DTP 시스템 제작 및 PC 교육

동아출판서비스
동아정보시스템·기획3부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36번지 고려아카데미텔Ⅱ 1714호
전화●701-8335,6·012-851-8336·팩시밀리●701-8336

책 중의 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출판·편집·기획 많이 해보신 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 국일미디어는 건강 의학, 레저 스포츠, 증권,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발행하는 20년 전통의 종합 출판사입니다. 이 계통에서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파 온 편집쟁이를 찾고 있습니다. 단행본 출판 경력이 많고 책임감 강한 감각있는 분이려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함께 의욕적으로 일해 봅시다.

서류는 이력서 1통과 자기 소개서 1부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살펴본 후에 면접하고자 하는 분께는 틀림없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력서 양식에 충실하게 기재하시고 자기 소개서에는 경력 및 활동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봉에는 반드시 '입사 지원 서류'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중구 신당 4동 341-6 우당 B/D 국일미디어